

‘영광에서 한 달 살기’ 체험 외지 청년들, 마을 활력 넣어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 참여

영광군 염산면 한 시골 마을에 광주·제주 등 외지 청년들이 들어와 살며 한적했던 마을에 활력이 넘치고 있다.

영광군은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청년형)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 청춘의 터닝포인트, Gbry 영광살이' 프로그램을 11일부터 시작했다.

광주·제주 등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정비작업을 마친 빈집 2곳에서 생활하면서 나와 공동체, 지역과 귀농·귀촌을 알아보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첫 주에는 도사마을 백두한 노인회장과 오상호 이장님, 부녀회장님 등 마을주민들이 떡과 화장지 등을 청

년들에게 전달하고 환영 현수막을 게첨하여 훈훈한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17일 도사경로당에서는 청년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하는 '전년의 빛계량' 나눔 환영 행사를 개최하였다. 청년들의 흥겨운 트로트 공연과 마을부녀회와 함께 준비한 삼계탕을 마을주민 등 40명과 나눠 먹으며 외지청년들과 마을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영광 한 달 살기에 참가한 청년들은 "평소에 영광이 어떠한 지역인지 궁금했는데 영광에 대해 알고 살아보고픈 기회를 얻게 되었다며 따뜻하게 맞이해 준 마을 주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외지 청년들이 도시에서의 스트레스를 치유하며 영광을 깊이 알아보는 의미 있는 한 달이 될 것이라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청년들이 영광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군에서는 '영광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추가로 참가자를 모집하며 참가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외지 청년으로 영광을 체험하고 싶은 청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영광군 홈페이지와 블로그(<https://blog.naver.com/glorryy30days>)에 게시된 참가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m4585@korea.kr)로 제출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인구일자리정책실(061-350-5257)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최형식 담양군수, 군민

건의사항 해결 '총력'

최형식 담양군수가 민선7기 군민과의 열린 대화에서 접수한 건의사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보고회를 열고 건의사항의 철저하고 세심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5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최형식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에 들어 접수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조기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군수는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지난해 9월 권역별 군민과의 열린 대화를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올 2월에는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읍·면별 현안 토론회를 여는 등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집중하고 있다.

보고회 내용에 따르면, 군민 건의사항은 2018년 203건, 2019년 649건 등 총 852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날 보고회 이후 처리계획을 내실화하고 군민 건의사항 해결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담양=박종영 기자

회순군, 휴대용 방역소독기 대여 사업 확대

회순군이 여름철 기후변화로 증가한 모기 매개 감염병 등에 관한 선제 대응으로 '휴대용 방역소독기 대여 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마을 이장과 농가 등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는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130곳과 다중이용 시설 주변까지 대여한다. 방역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도 지원할 예정이다. 감염병 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해 주민 건강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휴대용 방역소독기는 차량 통행이 어려운 좁은 골목, 풀숲 등에서 요긴하게 사용된다. 공공방역과 자율방역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여 신청을 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소독기 사용법과 살충제 희석비율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은 후 대여할 수 있다. 대여 사업은 10월까지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감염병관리팀(☎379-5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휴대용 방역소독기 대여 사업 확대로 여름철 해충 발생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고 주민들의 자율 방역활동도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회순군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하수구, 정화조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유충구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여름철 492곳을 집중적으로 방역해 감염병 없는 회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회순=박순철 기자

장흥군, 벼 먹노린재 긴급 방제 대책 협의회 개최



장흥군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벼 병해충(먹노린재) 긴급 방제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벼 병해충(먹노린재) 긴급 방제 대책 협의회는 지난 벼 병해충 순회 예찰 결과를 토대로 개최됐다.

벼 병해충(먹노린재) 정밀 예찰결과에 따른 당부사함과 읍면별 동향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이 됐다.

올해 먹노린재 예찰결과 월동성충의 생존율이 평년보다 높았으며, 전년 대비 발생시기가 1주일 정도 앞당겨지고 밀도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앞에서 부화하여 유충상태에 있는 추세로 방제를 소홀할 경우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반드시 논을 예찰하여 50주당 1마리 이상 발견이 되면 벼 포기 밑까지 적용 약제를 충분히 살포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논톱을 빼고 해질 무렵 적용 약제를 논두렁을 포함하여 충분히 살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사료용 옥수수 단지 등에서 열대기세 미니방 유충으로 추정되는 개체가 발견되어 농가분들께서는 세밀하게 관찰하고 의심 개체 발견시 장흥군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함평군, 'SNS 홍보단' 31일까지 모집

관광명소·축제·농특산물 등 분야별 콘텐츠 소개

함평군이 오는 31일까지 '함평군 SNS 홍보단'을 최초 모집한다.

다각적인 긍정홍보를 위해 모집되는 이번 홍보단은 지역관광명소, 축제, 농·특산물, 맛집과 같은 분야별 콘텐츠를 소개하는 온라인 홍보대사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공식 SNS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요한 정보는 외부에 적극 공유한다.

모집인원은 단장 외 30명 수준이

며, 다음달 1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다만 조례상 모집인원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이번 최초모집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추가모집을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SNS 이용자 중 함평에 관심이 많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전자기기(사진, 동영상 등 촬영) 활용에 능숙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함평군 홈페이지(www.hampyeong.go.kr) 고시

/공고 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함평군청 기획감사실(함평읍 중앙길 200) 홍보팀으로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 이메일(soundless@korea.kr)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다음달 1일 개별 연락 및 군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발표된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이중 70% 이상이 SNS 이용자라는 통계처럼, 이제 SNS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홍보수단이 됐다"며, "첫 발을 내딛는 함평군 SNS 홍보단에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장성군, 신소득 약용작물 '지황' 육성 박차



장성군이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새로운 약용작물로 '지황'을 육성한다.

장성군은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황'을 육성하기 위해 '약초 안정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 장성약초연구회와 관내에 소재한 한약재 제조·유통업체 ㈜시와이에 남품할 약용작물로 경옥고의 주원료인 지황을 선정했다.

지황은 다른 작물에 비해 재배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워 다양한 교육으로 전문 지식을 갖춘 농업인이 재배하기

에 적합하다. 이에 군은 올해 미래농업대학에 약용작물학과를 개설하고 운영 및 품목별 전문교육을 통해 토양관리, 식재방법, 제조관리 등 전문기술을 제공해 오고 있다. 또한 지황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신진기술 습득 및 벤치마킹을 위한 신진지 견학도 추진하고 있다.

'지황'의 뿌리는 한방에서 약재로 쓰이며, 날것은 생지황, 건조시킨 것은 건지황, 술에 넣고 찌는 숙지황이라 불린다. 혈당강화, 강심, 이뇨, 간기능 개선, 항균작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장성군이 육성하고 있는 '토강', '고강'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생산성과 품질이 좋고 병에 강한 특징이 있다. 또한 국산품종은 기능성분인 카탈폴 함량이 외국산보다 높고 품질도 좋아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에 많이 쓰인다.

나주 '다시초교' 치매

극복 선도학교 지정

협약 체결하고 현판 전달

나주시는 지역사회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치매극복 선도학교로 다시초등학교를 지정, 지난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정 현판을 전달했다.

다시초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이체주 나주시보건소장(치매안심센터장), 이경희 다시초 교장 등 관계자 11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역사회 치매 예방과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정 사업으로 치매예방교실과 치매안심마을(다시면 죽산5리) 운영 등 치매 극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